

##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한 다한증의 흉부 교감신경 차단술

조덕곤, 조규도, 광문섭, 김세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_ 다한증치료에 흉강경하 교감신경 차단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2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병원에서는 이 기구를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차단술의 단기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_ 1997년 12월부터 1998년 8월까지 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mm 흉강경기구를 이용하여 흉부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남자가 17명, 여자가 37명이었고, 나이는 15세에서 62세로 평균 25.5세였다. 35례의 수족 및 안면부 다한증의 경우에 흉부 2번, 17례의 수족, 안면 및 액와부 다한증은 흉부 2, 3번, 2례의 액와부 다한증은 흉부 2, 3, 4번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수술결과는 수술 직후 및 2주에서 8개월후 추적관찰 결과를 분석 하였다.

**결과** : \_ 수술 직후 전례에서 증세가 소실 되었으며, 추적기간 중 92.2%가 수술결과에 만족하였지만 4례에서는 수술받은 것을 후회하였다. 족부 발한증세를 호소하였던 환자중 83.3%가 수술전보다 호전되었다. 수술시간은 25분에서 155분까지로 평균 58.9분이었다. 수술 당일 입퇴원한 환자는 최근 수술한 11명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음날 퇴원하였다. 심한 늑막유착이 있었던 4명의 환자중 2명은 한쪽은 10mm 흉강경으로, 2명에서는 3군데의 2mm 트로카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합병증은 2명의 환자에서 수술 다음날 기흉이 발생하여 주사침 배기를 시행하였으나 그외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추적기간 중 전례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몸통이나 다리부위 등에 보상성 발한을 호소하였다. 이중 일상 생활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17례[33.3%]였으며, 수술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심해진 경우가 13례[25.5%]였다. 4례의 갱년기 이후 수술환자의 경우 더 심한 보상성 발한을 호소하였다.

**결론** : \_ 2mm 흉강경기구를 이용한 다한증환자의 수술은 환자의 만족도 면에서 아주 우수한 술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숙련시 전반적인 늑막유착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술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보상성 발한에 대한 보다 더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설명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해야하며, 특히 갱년기 이후의 다한증수술시 더욱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책임저자:조덕곤(가톨릭의대) 발표자:조덕곤(가톨릭의대)